

한국판 양육 수용행동 척도(Korean Parental Acceptance Questionnaire: K-4-PAQ) 타당화 연구*†

김 승 민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본 연구는 양육과 관련한 심리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Greene, Field, Fargo와 Twohig(2015)가 개발하여 타당화한 양육수용행동 척도(6-PAQ)를 한국 상황에 맞게 타당화 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만 3세- 만 12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 19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6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 6-PAQ 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 척도 - 탈융합, 가치, 현재에 머무르기, 맥락으로서의 자기 - 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4-PAQ라고 명명하였다. K-4-PAQ의 하위 요인들은 적절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또한 한국판 AAQ-II, EQ, PSI/SF, PSOC, PANAS 등 관련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수렴 및 공존 타당도, 증분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 K-4-PAQ가 양육과 관련한 심리적 유연성을 측정하기에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이 시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 하였다.

주요어: 양육 스트레스, 양육 관련 심리적 유연성, 수용과 전념 치료

* 본 연구는 2016년 ACBS Annual World Conference 14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본 연구는 201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경, (0179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Tel: 02-970-5885. E-mail: kpark@swu.ac.kr

자녀 양육은 부모만의 일방적인 관계도 아니며 단순한 과정도 아니다. 부모는 성인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면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맞춰 적절한 신체적 심리적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 상황이나 이사 혹은 부모의 신체질환이나 정신과적 문제, 사회적 지지의 부족과 같은 외적 사건이라는 맥락과 상황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또한 양육에는 부모와 자녀 각자가 경험하는 감정, 사고, 지각과 같은 내적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역동적이며 상호적이고 관계적 과정이 포함된다(Bögels, Hellemans, Deursen, Römer, & Meulen, 2013; Coyne & Wilson, 2004).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양육을 위해서 부모는 자신의 내적 감정과 행동을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의 감정이나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하며, 동시에 자녀의 불안을 버티고 견디어 주면서 자녀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고 진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Bögels et al., 2013). 또한 현재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의 순서를 정하고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종합적인 판단과 행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Sanders & Mazzucchell, 2013). 이처럼 맥락적으로 유연하고 적절한 조절능력의 발휘는 긍정적인 양육에 있어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Burke & Moore, 2014; Crandall, Deater-Deckard, & Riley, 2015; Moyer & Sandoz, 2015; Rutherford, Wallace, Laurent, & Mayers, 2015).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양육 행동과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 요인으로 온정(warmth), 적절한 통제(control)와 관여(engagement), 자율성 지지(autonomy support)의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온정의 부족, 과도하거나 지나친 통제와 부적절한 관여, 회피 전략 등은 부정적인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Moyer & Sandoz, 2015). 예를 들어 부모의 높은 수준의 행동적 통제는 아동의 외현화된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지각된 통제력 부족에 기여함으로써 불안에 대처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불안을 지속시킨다는 것이다(Ballash, Leyfer, Buckley, & Woodruff-Borden, 2006). 또한 불안한 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관여수준이 낮거나 혹은 지나치게 관여하는 등 비효과적인 양육 전략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고, 회피 전략은 모호하고 불안한 것을 견디기 힘든 부모들이 어려운 상황을 도피하는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대처방식이라고 밝혀졌다(Chorpita, Albano, & Barlow, 1996; Woodruff-Borden, Morrow, Bouland, & Cambron, 2002).

그러나 온정, 통제와 관여 그리고 자율성 지지라는 부모 요인은 양육 행동의 유형을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실제 도전적인 양육 상황에서 부모가 직면하는 심리내적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부정적인 양육 방식의 주요한 원인으로 부모의 감정조절의 실패가 결정적이며(Ballash et al., 2006; Crandall et al., 2015; Rutherford et al., 2015; Woodruff-Borden et al., 2002),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나 공격적이고 분노 기질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의 조절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Rutherford et al., 2015; Williford, Calkins, & Keane, 2007). 또한 앞서 언급된 긍정적인 부모의 요인이 양육 상황

에서 발휘되기 위해서는 감정조절 능력 혹은 전 반적인 자기 조절 능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Crandal et al., 2015; Rutherford et al., 2015; Sanders & Mazzucchelli, 2013). 예를 들어 마음챙김과 수용과 같은 기법을 통해서 양육 상황에서 경험하는 반복적인 좌절이나 부모로서의 무능력한 느낌 혹은 우울과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자극에 대한 심리적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회피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경험하도록 개방하는 것이다(Murrell, Wilson, Laborde, Drake, & Rogers, 2008). 이러한 심리적 유연성은 감정, 사고와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적응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Gloster, Klotsche, Chaker, Hammer, & Hoyer, 2011), 가족 내 경험을 통한 초기 사회화 과정의 결과물이기도 하다(Williams, Ciarrochi, & Heaven, 2012).

Hayes, Luoma, Bond, Masuda와 Lillis(2006)는 자기 조절 능력과 감정조절 능력을 심리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켰고, 심리적 유연성 모델을 기반으로 수용과 전념 치료(ACT)를 발전시켜왔다. ACT의 최종 목표는 심리적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며 이것은 현재에 머무르기, 수용, 인지적 탈융합, 맥락으로서의 자기, 가치, 전념 행동 등 6가지의 심리적 과정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ACT는 정신병리나 심리적 고통을 심리적 유연성의 부재 즉 심리적 경직성으로 설명하는데, 특정한 사적 경험 예를 들어 신체적 감각이나 정서, 사고, 기억, 행동적 경향성에 접촉하지 않고 그 형태, 빈도 및 발생된 상황을 바꾸고자 할 때 생기는 현상으로 경험회피라고도 설명한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심리적 유연성은 전반적인 조절능력과 실행기능의 측면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며 정신 건강의 근본적인 요소로 여겨지며(Kashdan & Rottenberg, 2010), 개인적인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가족의 맥락에서 가족의 관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감정조절 능력,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도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Murrell & Scherbarth, 2011).

심리적 유연성과 양육과 관련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지만, 연구 결과 긍정적인 양육을 하는데 중요한 매개 변인으로서 심리적 유연성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Coyne와 Wilson(2004)은 경험회피 혹은 심리적 경직성이 높은 부모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회피, 억제와 억압과 같은 비효율적인 양육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유연성은 중요한 조절 변인이었으며(Moyer & Sandoz, 2015), 부모의 적절한 권위가 발휘되는 양육 방식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유연성을 예측하였고 동시에 자녀의 심리적 유연성은 부모의 양육 방식의 변화를 유발하였다(Williams et al., 2012). 부모의 과보호와 과잉통제 방식도 경험회피의 패턴으로 부모 스스로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가 더욱 강해지고 자녀의 불안 문제가 더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Cheron, Ehrenreich, & Pincus, 2009). 양육 관련 심리적 유연성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심리적 유연성이 높은 부모는 양육과 관련한 상황에서 심리적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과 관련한 심리적 유연성은 적응적인 양육 행동의 중요한 예측 변인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로 심리적 유연성이 높은 부모의 경우 자녀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행동의 수준이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Brassell et al., 2016). Coyne과 Murrell(2009)은 ACT에 기반한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양육 상황에서 심리적 유연성이 높은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 갈등에 직면하거나 혹은 양육 스트레스가 심할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 충동 등을 비판단적으로 바라보고 수용함으로써 부모 자녀 관계를 유지하고 온정을 표현하고 적절한 경계와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꾸준히 실행할 수 있게 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양육과 관련한 심리적 유연성과 경험회피와 관련된 연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용행동질문지(The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AAQ)를 사용해 왔는데, AAQ가 양육과 같이 특정행동과 관련한 심리적 유연성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Burke & Moore, 2014; Greene et al., 2015; Loyal & Hastings, 2008). 개념적으로 볼 때 심리적 유연성이란 개인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맞춰 유연하고 다양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일반적인 감정적 고통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자녀가 보이는 감정적인 고통에 유연하게 반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AAQ는 삶의 전체 영역에 대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심리적 유연성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맥락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제기되면서(Gloster et al., 2011). AAQ를 기본으로 특정 문제와 관련된 심리적 유연성을 측정하는 척

도들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유연성에 대한 척도로서 만성통증 수용 척도인 CPA(McCracken, Vowls, & Eccleston, 2004), 당뇨병과 관련된 수용행동 척도인 AAD(Gregg, Callaghan, Hayes, & Glenn-Lawson, 2007), 불안장애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수용행동 척도 PAAQ(Cheron et al., 2009) 등이다.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과 관련한 심리적 유연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만 10세-18세 대상의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인 PPF(Burke & Moore, 2014)와 만 3세-12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인 6-PAQ(Greene et al., 2015) 등이 있다.

국내에서 심리적 유연성과 경험회피 그리고 양육과 관련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한국에서 개발되거나 연구된 부모 양육 관련 척도에는 부모의 양육 행동의 구분(이선희, 도현심, 2014; 임정하, 정옥분, 2004), 양육 불안과 같은 정서의 측정(위지희, 채규만, 2015), 혹은 기존의 양육 행동 척도들이 단순히 양육 행동적 특징을 분류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고 자기결정성이론을 반영하는 한국판 부모 양육 행동 척도인 K-PSCQ(정교영, 신희천, 2011) 등이 있다. 이러한 척도들은 부모의 심리, 사고, 행동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어 양육 상황에서 부모의 심리내적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6-PAQ와 같이 양육과 관련한 심리적 유연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외적 사건 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긴장, 분노와 같은 내적 사건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Williams et al., 2012).

6-PAQ는 만 3세-만 12세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유연성을 측정하는 질문지로서 한국 사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의 경우 이 시기에는 부모와 아동 모두 처음으로 공동생활에 노출되고 교사나 또래로부터 평가를 받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가 관찰되기 시작하고 부모 또한 양육과 관련한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때에 나타나는 아동의 문제가 간과되거나 부모의 적절한 양육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 학령기 학교부적응이나 청소년기 비행과 일탈, 성인기 정신과적 문제로 지속될 수 있는 위험성이 보고되었다(김연 외, 2006;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게다가 부모의 역할도 정서적 친밀감에서 자녀의 인지적 사회적 기능이 중요해지면서(Nomaguchi, 2012) 타인과의 비교와 평가를 통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김수지 외, 2015).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자녀의 심리적 불편감을 버텨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역할과 동시에 부모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와 사고

를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김수지 외, 2015; 예서현, 2004). 즉 부모의 자기조절능력과 감정조절 능력이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로서 부모의 심리적 유연성의 측정과 개입은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긍정적인 양육행동 증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6-PAQ의 6요인 구조가 한국 부모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6요인이 도출되는지 알아보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봄으로서 국내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참여자

현재 만 3세-만 12세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연구 목적과 절차에 동의한 204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미응답 문항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19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197명)

		N	%
성별	남자	35	17.8
	여자	162	82.2
자녀수	1	72	36.5
	2	86	43.7
	3	12	6.1
학력	고졸	11	5.6
	대졸	145	73.6
	대학원졸	40	20.3
직업	전문직	48	24.4
	사무직	33	16.8
	자영업 및 서비스업	16	8.1
	전업주부	100	50.8

성을 살펴보면 우선 어머니는 162명, 82.2%로, 아버지는 35명으로 17.8%를 차지하였다. 자녀 수는 1-2명이 158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0%를 차지하였다. 또한 학력 수준은 대졸이 145명, 73%, 석사 이상의 학력은 40명으로 20.3%, 고졸은 11명으로 5.6%였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100명으로 50.8%였으며, 뒤를 이어 전문직 48명 24.4%, 사무직 33명으로 16.8% 그리고 자영업 및 서비스업이 16명, 8.1% 순이었다(표 1).

측정도구

한국판 양육 수용행동 척도(The Parental Acceptance Questionnaire; K-4-PAQ). Greene 등(2015)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심리적 유연성을 측정하는 질문지이다. 원저자들의 연구는 6-PAQ로 심리적 유연성을 구성하는 6개의 요인(수용, 현재에 머무르기, 맥락으로서의 자기, 탈융합, 가치, 전념행동)로 이루어져 있고 각 요인당 3문항 씩 할당되어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요인 부하량이 낮은 3문항을 제외하고 총 15문항, 탈융합, 가치, 현재에 머무르기, 맥락으로서의 자기 등 4개의 하위 요인 구조로 이루어진 최종판(이하 K-4-PAQ)을 사용하였다. K-4-PAQ는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가하며 가치 척도는 모두 역산 문항이다. 점수 범위는 15점~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유연성이 낮고, 점수가 낮을수록 심리적 유연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1(.64-.74)이었다.

한국판 수용행동질문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AAQ-II). Hayes(2004) 등이 개발한 AAQ-I을 Bond 등(2011)이 단일차원 척도로 개정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선영(2009)이 번안한 수용행동질문지-II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 상에서 평가한다. 1번, 6번, 10번 문항은 역산 문항이며, 점수 범위는 10-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회피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Bond 등(201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3(.76-.87)이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이선영(2009)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 .80,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0이었다.

탈중심화 척도(Experiences Questionnaire; EQ). 인지적 탈융합을 측정하기 위해 Fresco, Moore 등(2007)이 개발한 탈중심화 척도를 김빛나, 임영진과 권석만(2010)이 대학생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수행한 한국판 탈중심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두 11문항으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탈중심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빛나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8,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86이었다.

양육 스트레스 질문지(PSI/Short form).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를 축소 개정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이다. 어머니

의 고통,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12문항씩 구성된다. 5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 환산은 역으로 한다. 임상적 해석에 따르면 총점이 90점 이상일 때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하위 척도 별로 보면, 어머니의 고통이 36점 이상,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27점 이상,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이 36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2였다.

양육 효능감 척도(Parent Sense of Competence; PSOC). 부모 자신이 자녀를 양육할 때 느끼는 부모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 효능감 척도(Parent Sense of Competence; PSOC)를 사용하였다. 이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것으로 신숙재(1997)가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모두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는 인지적 차원에서의 부모 효능감과 정서차원의 부모로서의 불안감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하는 5점 척도이며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적 합치도는 .89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2였다.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Clack과 Tellegen(1988)이 개발한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를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등(2003)이 한국말로 번안하고 타당화 연구를 실시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나타내는 형용사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정서를 5점 척도(0=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총합을 따로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석한다. 이현희 등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연구 절차

한국판 6-PAQ 척도 타당화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이메일을 통해서 원저자의 승인을 얻었다. 이후 연구자와 심리치료학 석사과정에서 있는 학생들이 함께 6-PAQ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전문번역가를 통해 다시 한 번 자연스러워하도록 문장들을 수정하였다. 또한 ACT에 능숙한 임상심리학자 두 명이 각 문항이 ACT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중 언어 사용자이며 영어교수법의 학위가 있고, 현재 교육심리학 박사과정생이 한국어 번역본을 영어로 역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완성한 설문지를 10명의 학부모에게 예비조사를 하여 문항이 이상하거나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6-PAQ 설문지와 타당화 작업에 요구되는 여러 개의 설문지를 포함한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경기도 소재의 한 지역에서 자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필검사와 구글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또한 네이버 육아카페에서도 연구목

적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모두 연구목적에 동의하였고, 설문에 대한 소정의 상금이 제공되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version 20)를 사용하여 기술 통계치를 구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는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회전은 프로맥스 방식을 선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Preacher, Zhang, Kim과 Mels(2013)의 제안에 따라 RMSEA 적합도 지수를 통해서 최적의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요인 부하량이 .30이상인 문항을 기준으로 고유치, 스크리도표, 설명량, 문항분석의 결과에 따라 요인과 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양육 수용행동 척도와 관련 변인들의 수렴 및 공존 타당도를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증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한국판 양육 수용행동 척도의 탐색적 요인 분석

양육 수용행동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18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KMO = .756, 구형성 지표, $\chi^2(153) = 855.82, p < .000$,로 변수 간 상관이 있고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은 프로맥스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추출을 위한 기준으로는 특정 문항의 요인부하계수(Factor Loading)가 .30이상이고 다른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계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의 6개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수의 가능성을 모두 탐색해 보았다. 우선 원척도와 동일하게 6요인을 고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6개의 요인이 산출되기는 하지만 한 요인에 한 문항이 할당되는 등 하나의 완전한 요인으로는 부족한 요인들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Preacher 등(2013)의 제안에 따라 RMSEA 적합도 지수를 통해서 최적의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2와 같이 요인 수 2~6까지 설정하여 각 요인에 따른 RMSEA를 구하고, 이 중

표 2. 요인수에 따른 RMSEA 지수

요인수	χ^2	df	p	RMSEA
2	256.929	118	.000	0.079
3	175.450	102	.000	0.062
4	<u>120.137</u>	<u>87</u>	<u>.011</u>	0.045
5	87.821	73	.114	0.035
6	60.251	60	.467	0.005

적합도 지수와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4요인수를 결정하였다.

요인 1은 원칙도의 탈융합 3문항과 맥락으로서의 자기 1문항이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였으며, 모두 양육과 관련된 부정적 신념을 반영하고 있어 원칙도와 동일하게 ‘탈융합’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원칙도의 가치의 3문항, 전념행동의 2 문항 그리고 맥락으로서의 자기 1문항이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였고 이를 ‘가치’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양육 상황에 충분히 머무르기 힘든 상황(현재에 머무르기 2문항)과 자녀와 기꺼이 함께 하기의 어려움(수용 1문항)을 반영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현재에 머무르기’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도전적인 양육 상황에 압도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문항들로서 ‘맥락으로서의 자기’로 명명하였고 2 문항으로 구성된다. 수용의 2문항(나아가 공공장소에서 아단법석을 떠는 걸 보느니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편이다. 나는 아이가 어떻게 행동할지 두려워 가게 데려가는 것을 피한다.)과 전념행동의 1문항(나는 효과적인 훈육을 위해 어떠한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다.)은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아서 생략되었다. 이러한 문항들은 연구 참여집단에서는 지나치게 어린 유아와 관련한 훈육 행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표

문항	요인			
	1	2	3	4
13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가 계획한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	.782			
11 나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이 든다.	.750			
06 다른 사람들에게 양육방식을 비판당하면 내가 나쁜 부모라는 생각이 든다.	.632			
16 우리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내가 부모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05			
05 나는 명확한 양육관을 가지고 아이와 상호작용한다.		.647		
18 나의 실제 양육 태도에는 일관성이 있다.		.596		
02 나는 내가 지향하는 양육과 관련된 가치를 명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582		
01 부모로서의 내행동은 나의 가치관과 일치한다.		.574		
10 나는 그때그때의 내 감정보다 부모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에 따라 아이를 양육한다.		.492		
07 나는 아이와 상호작용할 때 그 시간에 집중한다.		.472		
08 아이랑 놀 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다.			.824	
17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어느새 그날의 내 계획이나 끝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이 빠진다.			.699	
12 나는 아이의 행동에 반응해 주기 싫어서 아이와 함께 매일 하는 일들을 계속하기 힘들다.			.552	
04 내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문제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내 감정에 휘둘리고 만다.				.797
09 아이와 함께 무엇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난다.				.575
총설명량(58.02%)	25.62%	15.59%	9.59%	7.21%
평균과 표준편차	2.33 (.73)	2.21 (.63)	2.17 (.70)	2.50 (.74)

생각된다. 요인 분석 결과표는 표 3에, 6-PAQ와 K-4-PAQ의 요인 구조 비교표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K-4-PAQ 신뢰도 및 하위 요인 간 상관

도를 산출하였다. K-4-PAQ의 내적 합치도는 .71이었다. 요인 1, 2, 3 그리고 4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72, .74, .71 그리고 .64였다. 각 요인 간 상관관이 중등도 미만의 수준의 상관을 보여 별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였다.

K-4-PAQ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적 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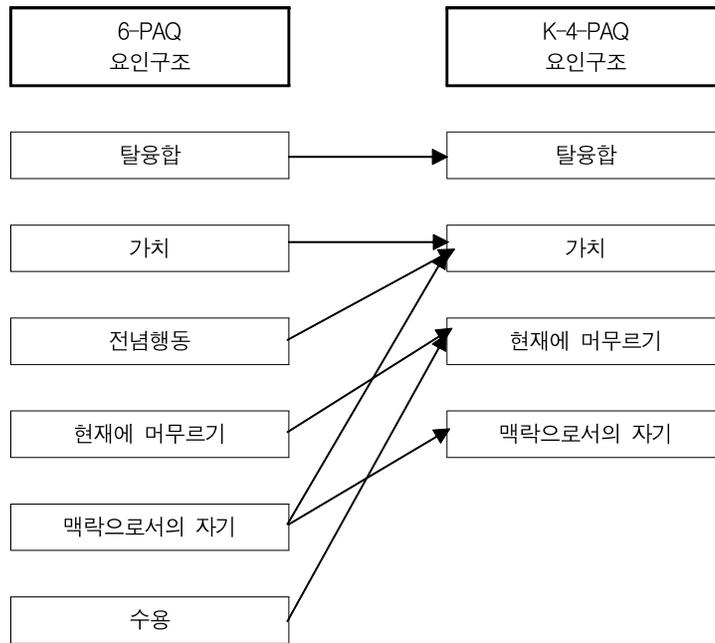


그림 1. 6-PAQ와 K-4-PAQ 요인 구조 비교표

표 4. K-4-PAQ 신뢰도 및 요인 간 상관

요인	1	2	3	4
1	1			
2	-.240**	1		
3	.481**	-.052	1	
4	.440**	-.304**	.401**	1
내적합치도	.72	.74	.71	.64

주. 요인1: 탈융합, 요인2: 가치, 요인3: 현재에 머무르기, 요인 4: 맥락적 자기.

수렴 및 공존 타당도

K-4-PAQ의 수렴 및 공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K-4-PAQ의 총점은 양육 스트레스 척도, $r=.52, p<0.01$, 거리두기 개념을 반영하는 탈중심화 척도, $r=-.491, p<0.01$, 심리적 경직성을 측정하는 수용행동척도, $r=.457,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K-4-PAQ가 양육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심리적 경직성과 거리두기와 같은 ACT와 관련된 개념을 반영하는 것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경희회피를 측정하는 수용행동척도와 K-4-PAQ의 하위 척도들은 모두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요인 1, $r=.37, p<0.01$, 요인 3, $r=.42, p<0.01$, 요인 4, $r=.38, p<0.01$,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요인 2와는 부적 상관, $r=-.28, p<0.01$,을 보였다.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인 거리두기와 유사한 탈중심화 기능에서도 K-4-PAQ의 각 하위 요인들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요인 1, $r=.38, p<0.01$, 요인 3, $r=-.38, p<0.01$, 요인 4, $r=-.44, p<0.01$,와 같이 부적 상관을, 요인 2, $r=.18,$

$p<0.05$,로 정적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K-4-PAQ와 양육 관련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양육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요인 1, $r=.38, p<0.01$, 요인 3은, $r=.488, p<0.01$, 요인 4는, $r=.41, p<0.01$,로 정적 상관관계를, 요인 2는, $r=-.17, p<0.05$,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 효능감과 관련 하여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체로 부적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긍정정서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요인 1은, $r=-.18, p<0.01$, 요인 3은, $r=-.30, p<0.01$, 요인 4는, $r=-.31, p<0.01$,와 같이 부적 상관을 보였고 요인 2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정서는 요인 1은, $r=.39, p<0.01$, 요인 3, $r=.42, p<0.01$, 요인 4, $r=.35,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요인 2는, $r=-.21, p<0.01$,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중분 타당도

K-4-PAQ가 기존의 양육 척도가 측정하는 정신병리 및 정신건강 관련 변인들에 대해 추가적 설명력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정정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K-4-PAQ의

표 5. K-4-PAQ 하위요인과 다른 척도와의 상관

K-4-PAQ	AAQ-II	EQ	PSI	PSOC	PANAS-P	PANANS-N
요인 1	.371**	-.380**	.378**	-.086	-.176*	.394**
요인 2	-.287**	.176*	-.168*	.128	.084	-.207**
요인 3	.419**	-.381**	.488**	-.113	-.298**	.423**
요인 4	.384**	-.440**	.410**	-.028	-.309**	.346**
총점	.457**	-.491**	.523**	-.073	-.328**	.465**

주. 요인1: 탈융합, 요인2:가치, 요인3:현재에 머무르기, 요인4:맥락으로서의 자기, AAQ-II:수용행동척도, EQ:탈중심화척도, PSI:양육스트레스척도, PSOC:양육효능감척도, PANAS-P:긍정정서, PANAS-N:부정정서.

** $p<.01$, * $p<.05$.

표 6. K-4-PAQ 증분 타당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i>F</i>	<i>R</i> ² 변화량
부정정서	양육효능감	.12	.14	.05	.75	.25	31.279	.25
	양육스트레스	.65	.08	.51	7.81			
	탈융합	.17	.09	.14	1.94			
부정정서	가치	-.26	.17	-.10	-1.52	.33	5.356	.08
	현재에 머무르기	.20	.09	.17	2.23			
	맥락으로서의 자기	.05	.08	.05	.63			

하위 요인들을 차례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부정정서에 대하여 총 8%의 유의한 증분 설명량이 나타났다, $F(1, 182)=5.356, p < .05$.

논 의

본 연구는 Greene 등(2015)이 개발한 양육과 관련한 심리적 유연성 척도인 6-PAQ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만 3세-12세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한국판 6-PAQ의 요인구조, 신뢰도,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6-PAQ 총 문항들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 저자의 연구와는 다르게 최종적으로 4개의 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다. 적합한 요인 수 결정은 RMSEA 지수가 .05보다 작은 경우와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다(Preacher et al., 2013).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양육수용행동 척도에 대해서 한국판 양육수용행동 척도 K-4-PAQ로 명명하였고, 각 요인에 대해서 원척도와 동일하게 ‘탈융합’, ‘가치’, ‘현재에 머무르기’, ‘맥락으로서의 자기’로 명명하였다. K-4-PAQ의 4개의 요인은 총 58.2%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전체적인 내적 합치도는 .71이었고 각 하위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는 .64-.74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가 나타났다.

K-4-PAQ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K-4-PAQ의 총점, 각각의 하위요인들과 한국판 수용행동척도, 탈중심화 척도, 양육 스트레스 척도, 양육 효능감 척도, PANAS 등 관련척도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K-4-PAQ의 총점은 양육 스트레스 척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으며, 수용행동척도와 부정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탈중심화 척도, 긍정정서와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양육 스트레스 척도는 현재에 머무르기, 맥락으로서의 자기, 탈융합 요인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양육과 관련한 상황에서 심리적 유연성의 저하는 높은 양육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음이 시사되었다. 또한 K-4-PAQ의 하위 요인들은 또한 낮은 심리적 유연성, 경험회피가 불안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상관이 있으며(Wolgast, 2014), 부모의 정서와 양육 스트레스 간에 경험회피가 매개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Cheron 외, 2009; Shea & Coyne, 2011)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K-4-PAQ가 기존의 양육관련척도와 구분되는 개념인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증분타당도를 산출해 본 결과 K-4-PAQ의 하위요인들은 부정정서에 대하여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K-4-PAQ가 양육과 관련한 스

트레스, 경험회피, 거리두기의 어려움 등의 개념들과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며 양육과 관련한 도전적 상황에서 부모의 심리내적 사건을 측정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양육 스트레스 척도는 현재에 머무르기와 맥락으로서의 자기 요인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uoma, Hayes와 Walser (2007)는 현재의 순간에 접촉할 수 있는 능력과 맥락적 자기의 유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판단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현재에 머물 수 있고 조망능력의 확장으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공감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능력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감정이나 입장을 자각하고, 부모 자신과 자녀에 대한 자비심을 갖게 되며, 좀더 조절적인 양육 행동을 함으로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양육에 중요한 부분들이다(Duncan, Coatsworth, & Greenberg, 2010). 연구 결과 제시된 K-4-PAQ의 현재에 머무르기와 맥락적 자기, 탈융합 요인들과 양육 스트레스 척도와의 높은 상관은 실제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모들의 심리내적 과정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치료적 초점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K-4-PAQ의 맥락으로서의 자기, 현재에 머무르기, 탈융합 요인 등은 ACT의 육각형 모델 중 마음챙김과의 접합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양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도전적인 양육 상황에서 마음 챙김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Coyne & Wilson, 2004; Duncan et al., 2010)와 유사한 맥락으로 K-4-PAQ의 평가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시사한다.

K-4-PAQ의 ‘가치 요인’은 다른 하위 요인들과

는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 원 척도의 가치와 전념 행동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였고, 수용행동척도나 양육 스트레스 척도, 부정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탈중심화 척도와 긍정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가치와 전념행동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 것은 중산층 한국 부모의 문화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전업주부의 자식 키우기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김선미, 2004)를 살펴보면 한국의 어머니의 경우 영유아기부터 자녀의 학습능력에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자녀의 학습 능력이 주요한 어머니의 역할로 여긴다고 한다.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 양육 가치관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높다. 가치가 일관된 방향이라면 가치와 전념행동은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Wilson과 DuFrene(2009)의 설명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특성 즉 고학력 전업주부이며 중산층에 속하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적 특성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경험회피나 심리적 경직성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기꺼이 경험하지 않음(willingness)과 행동하지 않음(inaction)과 같이 AAQ의 경험회피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보다 더 중점을 두었다(Wolgast, 2014). 그러나 최근 경험회피보다는 심리적 유연성이라는 좀 더 광의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이동하였고(Bond et al., 2011), 동시에 심리적 현상의 맥락적 특수성이 고려되었다(Gloster et al., 2011). 양육과 관련한 심리적 유연성 척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적 유연성의 6가지 과정을 모두 반영하고자 하였고, 대표적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와 유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척도가 개발되었다. 청소년

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유연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PPF는 탈융합, 전념행동, 수용이라는 3 요인으로 구성되었다(Burke & Moore, 2014). 이러한 점을 보충하고자 6-PAQ는 심리적 유연성의 6가지 과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심리적 유연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6-PAQ는 심리적 유연성의 육각형 모델을 구성하는 6가지 심리적 과정이 존재한다는 이론적 배경에 맞춰 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선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구성타당도를 증명하였다(Greene et al., 2015). 이러한 과정에서 수용과 가치와 같은 항목에는 미국과 한국의 양육 상황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K-4-PAQ에는 가치를 포함하여 맥락으로서의 자기, 탈융합, 현재에 머무르기와 같이 심리적 유연성을 위한 두 가지 큰 과정 즉 마음챙김과 수용의 과정 그리고 전념행동과 행동변화의 과정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심리적 유연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4-PAQ 타당화 연구는 ACT의 심리적 유연성과 양육과의 관련성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심리적 유연성과 양육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ACT에 기반한 양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치료의 효과의 측정 또한 일반적인 심리적 유연성을 측정하는 척도인 AAQ를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김미하, 손정락, 2011; 김유정, 2014; 양선미, 박경, 2014). ACT 효과 연구에서 과정변인의 추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측정 도구의 개발은 ACT 치료 개입 연구자들에게는 중요한 과제이다(Wilson,

Sandoz, & Kitchens, 2010). 게다가 한국에서는 ACT에서 의미 있게 추구하는 과정변인에 대한 측정도구의 개발이나 타당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 상황에서 ACT의 심리적 유연성 모델에 기초한 양육과 관련 심리적 유연성 척도 연구의 첫 시도는 국내의 ACT 과정변인 연구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양육 행동을 심리적 유연성 모델의 틀 안에서 재정의하는 것은 기존의 양육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양육과 관련한 심리적 유연성이 높아질 때 부모는 갈등 상황에서 경험하는 좋고 나쁜 다양한 감정이나 사고를 피하거나 벗어나려 하기 보다는 이를 자연스러운 양육 과정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면서 힘들지라도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좋은 부모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K-4-PAQ의 하위 요인 중 현재에 머무르기와 맥락으로서의 자기 요인은 양육 스트레스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는 심리적 유연성과 양육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에 머무르기와 맥락적 자기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즉 긍정적인 양육에는 부모가 현재의 순간에 접촉할 수 있어야 하며, 갈등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기감과 관찰자 자기를 유지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 대한 조망수용능력과 공감능력의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 집단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고학력, 전업주부가 대다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신

되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과 좀 더 다양한 집단의 부모를 대상으로 K-4-PAQ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심리적 유연성의 6가지 과정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한국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한국판 양육 수용 행동척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실제로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척도의 임상적 활용과 그 유용성이 논의되고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척도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ACT에 기반한 양육 프로그램에서 과정변인을 측정하는 임상적인 도구로의 활용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참 고 문 헌

- 김 연, 한태숙, 정인희, 박연경, 황혜정, 구현아 (2006).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 기질,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간의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1(2), 229-250.
- 김미하, 손정락 (2011). 수용전념 집단치료가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1), 207-223.
- 김빛나, 임영진, 권석만 (2010). 탈중심화가 내부초점적 반응양식과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573-596.
- 김선미 (2004). 전업주부의 '자식 키우기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537-553.
- 김수지, 송승민, 도현심, 신나나, 김민정, 김은혜 (2015). 학령기 전환 자녀의 어머니 역할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8(2), 111-130.
- 김유정 (2014). 수용-전념 치료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인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선미, 박경 (2014). 발달장애 아동의 어머니를 위한 수용전념집단치료 및 자기자비의 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6(1), 27-47.
- 예서현 (2004). 의사소통 훈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 효능감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위지희, 채규만 (2015). 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945-970.
-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한국 유아 행동 문제의 경향과 특성: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53-73.
- 이선영 (2009). 수용전념 치료에서 과정변인이 불안에 미치는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희, 도현심 (2014). 학령 초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 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兒童學會誌*, 35(6), 111-133.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임정하, 정옥분 (2004). 한국적 양육 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人間發達研究*, 11(4), 55-73.
- 정교영, 신희천 (2011). 한국판 부모 양육행동 척도 (Korean-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K-PSCQ)의 타당화. *상담학 연구*, 12(4), 1287-1305.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llash, N., Leyfer, O., Buckley, A. F., & Woodruff-Borden, J. (2006). Parental control in the etiology of anxiety.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 113-133.
- Bögels, S. M., Hellemans, J., Deursen S. V., Römer,

- M., & Meulen, R. (2013). Mindful parenting in mental health care: Effects on parental and child psychopathology, parental stress, parenting, coparenting, and marital functioning. *Mindfulness*, doi:10.1007/s1267-013-0209-7
- Bond, F. W., Hayse, S. C., Baer, R. A., Carpenter, K. M., Guenole, N., Orcutt, H. K., ... Zettle, R. D. (2011). Preliminary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II: A revised measure of psychological inflexibil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Behavioural Therapy*, 42(4), 676-688.
- Brassell, A. A., Rosenberg, E., Parent, J., Rough, J. N., Fondacaro, K., & Seehuus, M. (2016). Parent's psychological flexibility: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contextual Behavioural Science*, 5(2), 111-120.
- Burke, K., & Moore, S. M. (2014). Development of the parental psychological flexibility questionnaire.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6(4), 548-557.
- Cheron, D. M., Ehrenreich, J. T., & Pincus, D. B. (2009). Assessment of parental experiential avoidance in a clinical sample of children with anxiety disorders.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40(3), 383-403.
- Chorpita, B. F., Albano, A. M., & Barlow, D. H. (1996). Cognitive processing in children: Relation to anxiety and family influence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5, 170-176.
- Coyne, L. W., & Wilson, K. G. (2004). The role of cognitive fusion in impaired parenting: An RF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ological therapy*, 4(3), 469-486.
- Coyne, L. W., & Murrell, A. R. (2009). *The joy of parenting*.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 Inc.
- Crandall, A., Deater-Deckard, K., & Riley, A. W., (2015). Maternal emotional and cognitive control capacities and parenting: A conceptual framework. *Developmental Review*, 36, 105-126.
- Duncan, L. G., Coatsworth, J. D., & Greenberg, M. T. (2010). A model of mindful parenting: Implications for parents-child relationships and prevention research.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ical Review*, 12, 255-270.
- Fresco, D. M., Moore, M. T., Dulmena, M. H., Segal, Z. V., Mac, S. H., Teasdale, J. D., & Willams, J. M. G. (2007). Initial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xperiences Questionnaire: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Decentering. *Behavior Therapy*, 38(3), 234-246.
- Gloster, A. T., Klotsche, J., Chaker, S., Hammel, K. V., & Hoyer, J. (2011). Assessing psychological flexibility: What does it add above and beyond existing construct? *Psychological Assessment*, 23(4), 970-982.
- Greene, R. L., Field, C. E., Fargo, J. D., & Twohig, M. P. (20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al acceptance questionnaire(6-PAQ). *Journal of Contextual behavioral Science*, 4, 170-175.
- Gregg, J. A., Callaghan, G. M., Hayes, S. C., & Glenn-Lawson, J. L., (2007). Improving diabetes self management through acceptance, mindfulness, and value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5, 336-343.
- Hayes, S. C., Louma, J. B., Bond, F. W., Masuda, A., & Lillis, J. (2006).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odel, Processes and outcomes. *Behavioural Research and Therapy*, 44(1), 1-25.
- Hayes, S. C., Strosahl, K. D., Wilson, K. G., Bissett, R. T., Pistorello, J., Toarmino, D., ... Polusny, M. A. (2004). Measuring experiential avoidance: A

- preliminary test of a working model. *Psychological Record*, *54*, 553-578.
- Hayes, S. C., Wilson, K. G., Gifford, E. V., Follette, V. M., & Strosahl, K.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1152-1168.
- Kashdan, T. B., & Rottenberg, J. (2010). Psychological flexibility as a fundamental aspect of health. *Clinical review*, *30*, 865-878.
- Loyed, T., & Hastings, R. P. (2008). Psychological variables as correlates of adjustment in mothers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cross sectional and longitudinal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2*, 37-48.
- Luoma, J. B., Hayes, S. C., & Walser, R. D. (2007). *Learning Act: A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skills-training manual of therapies*.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 Inc.
- McCracken, L. M., Vowls, K. E., & Eccleston, C. (2004). Acceptance of chronic pain: Component analysis and a revised assessment method. *Pain*, *107*(1-2), 159-166.
- Moyer, D. N., & Sandoz, E. K. (2015). The role of psychological flexi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adolescent distres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 1406-1418.
- Murell, A. R., & Scherbarth, A. J. (2011). ACT with children, adolescent and par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Consultation and Therapy*, *7*(1), 15-22
- Murrell, A. R., Wilson, K. G., LaBorde, C. T., Drake, C. E., & Rogers, L. J. (2008). Relational responding in parents. *The Behavior Analyst Today*, *9*(3-4), 196-214.
- Normaguchi, K. M. (2012).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larifying the role of child ag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Social Science Research*, *41*, 489-498.
- Preacher, J. K., Zhang, G., Kim, C. T., & Mels, G. (2013). Choosing the Optimal Number of Factor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Model Selection Perspective.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8*, 28-56.
- Rutherford, H. J., Wallace, N. S., Laurent, H. K., & Mayers, L. M. (2015). Emotional regulation in parenthood. *Developmental Review*, *36*, 1-14.
- Sanders, M. R., & Mazzucchelli, T. G. (2013). The promotion of self-regulation through parenting intervention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ical Review*, *16*, 1-17.
- Shea, S. E., & Coyne, L. W. (2011). Maternal Dysphoric mood, stress, and parenting practices in mothers of head start preschoolers: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Child & Family Behaviour Therapy*, *33*, 231-247.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Williams, K. E., Ciarrochi, J. C., & Heaven, P. L. (2012). Inflexible Parents, Inflexible Kids: A 6-year longitudinal study of parenting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flexibil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1*, 1053-1066.
- Williford, A. P., Calkins, S. D., & Keane, S. P. (2007). Predicting change in parenting stress across early childhood: child and maternal fac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251-263.
- Wilson, K. G., & DuFrene, T. (2009). *Mindfulness for two*.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 Inc.
- Wilson, K. G., Sandoz, E. K., & Kitchens, J. (2010). The valued living questionnaire: Defining and

measuring valued action within a behavioural framework. *The Psychological Record*, 60, 249-272.

Wolgast, M. (2014). What Does the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AAQ-II) really measure? *Behavior Therapy*, 45, 831-839

Woodruff-Borden, J., Morrow, C., Bouland, S., & Cambron, S. (2002). The behavior of anxious parents: Examining the mechanisms of transmission of anxiety from parent to child.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 354-374.

원고접수일: 2017년 2월 14일

논문심사일: 2017년 2월 16일

게재결정일: 2017년 6월 2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7. Vol. 22, No. 3, 531 - 549

Korean Adaptation of the Parental Acceptance Questionnaire(K-4-PAQ)

Seung-Min Kim

Kyung Park

Seoul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Therapeutic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al Acceptance Questionnaire(6-PAQ), developed by Greene, Field, Fargo & Twohig(2015). The participants included 197 parents of children ages 3-13 year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ed in a 15-item, 4-factor structure; these factors were identified as defusion, value, being present, self-as-context.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al Acceptance Questionnaire comprised of 4-factors was named K-4-PAQ. The K-4-PAQ had adequate reliability and validity with AAQ-II, EQ, PSI/SF, PSOC, PANAS, and was thus suitable for parenting psychological flexibility among parents of young children. Empir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s well as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parenting stress, parental psychological flexibility,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